

# ‘미완’이라는 희망안고 ‘최강’으로 가는 담금질

## 스프링캠프 앞둔 KIA, 정리된 것과 남은 것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비교적 차분한 비시즌을 보내고 있다. 선수단의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모든 그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어디까지 정리됐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볼 때다.

질 수 있다.

불펜 역시 기본 구상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역할 분담은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거치며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양과 홍민규의 합류로 선택지는 지난 시즌보다 넓어졌다. 핵심 자원 조상우와의 내부 FA 협상 테이블도 불펜 구성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야수 쪽에서는 변화와 점점이 동시에 이뤄진다. 외국인 선수 카스트로와 데일이 합류하면서



지난해 11월 일본 오기나와에서 진행된 KIA 마무리캠프에서 이범호 감독이 이동걸 코치, 김태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원투펀치’+양현종 큰 틀 유지, 남은 선발자원 점검  
이태양·홍민규 합류…숨통 트인 불펜 조상우 관건  
카스트로·데일 중심 수비조직력 완성 관전 포인트  
리드오프·지명타자 ‘운영의 묘’…타선 집중력 해법

먼저 마운드는 지난 시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수 네일과 올라가 잔류하면서 선발진의 중심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다만 국내 선발 자원들의 역할에는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 김태형이 선발 자원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되고, 양현종이 출장 관리에 들어갈 경우 더 유연한 마운드 구성이 필요해

내·외야 구성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그중에서도 내야 수비는 캠프를 통해 집중적으로 맞춰보아야 할 영역이다.

유격수를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주전 라인업은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백업 자원 활용과 포지션 운용은 현장에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야 역시 수비 조직의 완성도를 가늠할 요소다. 중견수 김호령을 중심으로 좌우 양 날개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외곽 수비의 안정감도 달라질 수 있다.

타선의 짜임새에도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박찬호의 이적으로 새로운 리드오프를 누구에게 맡길지가 구단의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나성범과 김선빈의 지명타자(DH) 병행 운

용이 검토되는 가운데, 중심 타수와 세부 역할은 캠프와 실전을 거치며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수진 역시 지난 시즌 구도를 유지한 채, 투수 운용과의 호흡을 중심으로 캠프에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 KIA의 비시즌은 모든 것이 확정된 단계라기보다는, 방향을 가다듬어 가는 과정에 가깝

다. 스프링캠프는 그 흐름을 조금 더 또렷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성급한 결론보다, 현재 위치를 차분히 짚는 시선이 어울리는 시점이다.

구단은 오는 22일부터 일본 아마미오시마에서 스프링캠프에 돌입한다. 새 전력의 어떤 방식으로 조율되고 정비되는지는,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주홍철 기자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전국 최초 훈련장 휴게실 리모델링 ‘눈길’

# ‘맞춤형 휴식’ 여건 개선…경기력 향상 도모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전국 최초로 훈련장 휴게실 리모델링으로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0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전국 122개 장애인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실업팀육성사업 특별지원’ 공모에 선정됐다.

그동안 장애인실업팀 특별지원 공모사업은 훈련 경기용품 구입, 전지훈련비 확보 등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직결되는 지원 항목으로 활용돼 왔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일선 현장 지도자와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휴식 여건 개선’을 통한 회복 지원이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당당히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에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광주 장애인탁구 실업팀 훈련장 내 휴게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진행했다.

리모델링 전문 업체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걸쳐 휠체어 장애인 선수 특성에 맞춘 개별 라커룸 및 간이 침대 커스텀 제작과 더불어 조명 바닥 벽지공사, 로고 작업 등을 통한 전반적인 공사를 완료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광주시청)은 “먼저 창고 느낌이 나던 기존 휴게실과 다르게 바뀐 휴게실은 프로축구, 야구팀 라커룸 같은 느낌이 나 신기하기도 하고, 광주시청 실업팀 선수로서 자부심도 생긴다”며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이 리모델링된 훈련장 내 휴게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고된 훈련 중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만큼 더욱 훈련에 매진해 올해 2026 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탁구 실업팀을 위해 앞으로도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선수단 지원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전국 최초 장애인탁구 실업팀으

로 창단된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조재관 감독, 광호근 코치, 남기원, 김영건, 김정길, 김성욱, 서수연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입단한 이준까지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4 파리 패럴림픽(금1, 은1, 동3),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금4, 은2, 동6), 2022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금6, 은2, 동4) 등 국제 메이저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최강’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올해 나고야 아시안게임(10월), 파타야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11월)에서도 선수단 전원 메달 획득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 중이다. /박희중 기자

## 광주FC, ‘원클럽맨’ 이민기와 동행

### 2년 재계약…이민기 “팬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

프로축구 광주FC가 ‘원클럽맨’ 이민기(32)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는 12일 “지난 시즌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끈 베테랑 풀백 이민기와 재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기는 2016년 광주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광주 유니폼만을 입고 활약해 온 대표적인 원클럽맨이다.

현재까지 리그 통산 172경기에 출전하며 구단 역대 최다 출장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꾸준한 출전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이민기는 2022년 K리그2 최다 승점 및 최다 승 기록 달성에 기여했으며, 2023년에는 구단 K리그 1 역대 최고 성적인 3위 달성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해당 시즌에는 K리그1 베스트11 좌측 풀백 부문 후보에 오르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부주장으로 선임돼 선수단 내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5년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며 시도민구단 최초 ACL 8강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이민기는 K리그1 통산 135경기 출전으로 구단 K리그1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주 상무 시절을 포함해 리그 189경기에 출전해 올해 통산 200경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7년까지 광주와의 동행을 이어가는 이민기.

〈광주FC 제공〉

이민기는 “프로 데뷔부터 지금까지 한 팀에서만 뛰어왔다는 점이 제게는 큰 자부심”이라며 “항상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기를 포함한 선수단은 전원 연봉 협상을 마무리한 뒤 동계 전지훈련지인 태국 후아한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

## 신민준, LG배 결승 1국 통한의 역전패

신민준(26) 9단이 LG배 결승 첫 경기에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신민준은 12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3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1국에서 일본의 이치리키 료(28) 9단에 259수 만에 불계패했다.

1국에서 흑을 잡은 이치리키는 초반부터 전투를 유도하는 대각선 포석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신민준은 우하귀에서 시작된 전투에서 먼저 유리한 형세를 차지했다.

하반에서도 우세한 행마를 펼친 신민준은 불과 50여수 만에 인공지능(AI) 예상 승률 95%를 웃도는 국면까지 만들었다.

일본 바둑의 1인자인 이치리키를 상대로 신민준의 완승이 예상되던 대국은 후반으로 접

어들며 좌변에서 예상치 못한 패싸움이 펼쳐지면서 순식간에 승부의 추가 흔들렸다.

여유 있게 앞서던 신민준이 흑 대마를 공격하는 과정에 실착이 나오자 이치리키가 좌변 대마 사활을 놓고 패를 만든 것.

당황한 신민준은 패를 몇 번 주고받다가 패를 해소했으나 이치리키는 그 대가로 단숨에 형세를 뒤집었다.

졸지에 불리해진 신민준은 끝내기에서 맹추격을 펼쳤으나 3집 가까운 차이를 끝내 만회하지 못하자 결국 돌을 던졌다.

28년 만에 성사된 LG배 ‘한일 결승전’에서 벼랑에 몰린 신민준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4일 열리는 결승 2국에서 반격을 노린다.

/연합뉴스

## 남자 U-20 축구대표팀 감독 공개 채용

### 축구협회, 2027 U-20 아시안컵 및 월드컵서 대표팀 지휘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남자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연령별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개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보다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도자들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U-20 대표팀 감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U-20 대표팀 감독은 서류 심사, 서류 합격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프레젠테이션(PT) 및 심층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모든 절차는 현영민 위원장이 이끄는 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서류는 23일 오후 6시까지 협회 이메일(recruit@kfa.or.kr)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는 반드시 아시아축구연맹(AFC) P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지도자 자격증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U-20 대표팀은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새로운 감독의 지휘 아래 2027년 3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AFC U-20 아시안컵을 준비하게 된다. 아시안컵 예선은 올해 하반기에 열린다.

아시안컵에서 월드컵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면 내년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한다. /연합뉴스